

절치부심의 '개그콘서트', 웃음 안고 돌아왔다



'개그콘서트'가 달라졌다. 16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는 이집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간 공개코미디의 위기를 일컬을 때마다 거론되었던 '개그콘서트'의 위기설. 과거 온 가족들이 모여앉아 주말을 정리하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던 '개그콘서트'는 공채개그맨 중간 기수의 부재와 잇따른 흥행 속에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6일 방송에서는 이런 모습을 털어내고 다시 부흥기를 맞

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개그콘서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대희·강유미·신봉선·박성광 등의 출연은 그야말로 힘이 됐다. 강유미는 새로운 코너 '돌아와 울'으로 웃음의 포문을 열었다. '돌아와 울'은 내레이터 모델로 직업을 전향한 전직 개그우먼 강유미의 일대기를 다룬 코너. '개그콘서트'의 위기와 이에 돌아온 강유미,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김대희·강유미·신봉선·박성광 등 출연 위기설 털어내고 부흥기 맞을 준비 보여줘

김대희·강유미·신봉선·박성광 등 출연 위기설 털어내고 부흥기 맞을 준비 보여줘

대센스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추어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전주에 이어 다시 선보인 '대화가 필요해 1987' 역시도 웃음을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대희와 신봉선이 단체 미팅 주최자로 나서 무대를 꾸렸다. 특히 이날 눈길을 끈 것은 후배 개그맨들과 어울려서 무대에 오를 김대희, 신봉선의 모습이었다. 일진 인터뷰에서 신봉선은 후배 개그맨들과의 무대를 꾸미고 싶다는 바람을 표출한 바 있었다.

신배 개그맨들과 후배 개그맨들과의 협업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이현정, 이수지는 그간 보여줬던 모습에서 더욱 배가시킨 웃음을 선사했지만 과거 강유미의 녹슬지 않은 무

를 보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짙게 했다.

폼다북다 마음으로 향하던 아이들은 택시와 버스 중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버스가 하루에 4대 밖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택시를 선택했다. 하지만 편안함도 잠시, 길이 협해 더 이상 택시로 가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여섯 청춘은 결국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염없이 산길을 걸었다. 택시를 타고 주정차했던 기대명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지친 친구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특유의 긍정적인 리더십으로 아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다. 힘든 산행 끝에 여섯 명 모두 포기하지 않고 숙소에 도착하자 부모들은 크게 환호했다. 그 동안 몰랐던 아이들의 반전모습을 발견한 부모들은 방송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 출연자들의 리얼한 리액션은 시청자들에게 끊임없는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시청률은 평균 4.1%, 최고 5%를 기록했다.

가치. 특히나 배정근은 낮은 풀 강호동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강호동인 줄 알았다"는 평까지 받았다.

'방송아학당'에서도 선배 개그맨들의 내공 쌓인 무대 실력을 엿볼 수 있었다. 박성광은 혼자 시는 남자라는 컨셉으로 '혼남' 캐릭터를 설정, 커플들에 대한 무한 분노를 쏟아냈다. 하지만 김대희의 결혼이 야기를 듣고는 부러워하는 반전 모습을 보여 웃음을 선사했다.

과연 레전드들의 귀환과 함께 다시 힘을 얻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후배개그맨들 역시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무대에 임했고, 그럼으로써 시청자들 역시 웃음을 얻을 수 있었다. 과연 '개그콘서트'가 지금의 동력을 가지고 더욱 큰 재미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개그콘서트'와 공개 코미디의 부흥을 다시금 기대하게 된다.

'동지탈출', 여섯 청춘 좌충우돌 생애 첫 독립일기 '뽀뽀'



tvN '동지탈출'이 15일 첫 방송됐다. 박상원, 박미선, 강주은, 이종원, 김혜선, 국회의원 기동민 등 부모들과 함께, 생애 첫 독립을 경험하게 된 이들의 자녀 6인 박지윤, 이유리, 최유성, 이성준, 최원석, 기대명이 소개됐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동지탈출을 선언한 6명의 청춘들은 낯선 땅 네덜란드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의 좌충우돌 생애 첫 독립일기는 시청자들에게 뽀뽀함과 신선한 웃음을 안겼다.

작했다. 이들의 좌충우돌 생애 첫 독립일기는 시청자들에게 뽀뽀함과 신선한 웃음을 안겼다.

"아빠를 닮아 닳을 가린다"는 박미선 딸 이유리, 아빠 기동민이 "뽀뽀한 딸 안 죽을 만큼만 한다"고 생각 하는 아들 기대명, 아빠 이종원이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한 막내 이성준 등 개성 강한 청

춘들이 출연했다. 또 배우 박상원을 딸 비자로 만든 예쁜 딸 박지윤, 아빠 최민수의 카리스마를 쏙 빼 닮은 최유성, 엄마 김혜선의 걱정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운 아들 최원석도 통통 튀는 매력을 뽐냈다.

청년독립단의 여행 목적지는 네덜란드 포카라의 폼다북다 마을이다. 제작진은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해주고, 이들의 자립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네덜란드 도착한 이들은 첫 날 하룻밤 묵을 숙소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물이지는 비바람과 으스스한 골목 어귀를 뚫고 안락한 보급자리를 찾아낸 일등공신은 김혜선의 아들 최원석이었다.

모두의 걱정과 달리 아늑한 숙소를 찾아낸 원석의 활약에 아이들은 그를 '갓원석'이라고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김혜선은 아들의 대견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동안 엄마서 챙겨주지 못했던 것에 미안해하는 모습

'비밀의 숲', 시청률 5.5% 최고 경신



'비밀의 숲' 12회에서 드디어 범인이 밝혀지며 안방극장에 강렬한 전율을 선사했다.

16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주말드라마 '비밀의 숲' (극본 이수연 연출 안길호) 12회는 특임팀 윤과 장(이규형)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 반전을 선사했고, 케이를 위성, IPTV 통합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에서 기준 평균 5.5%, 최고 6.2%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체널의 주요 타깃인 20대~40대 남녀 시청층에서도 평균 4.1% 최고 4.6%로 나타나며 지난 시청률 보다 큰 폭 상승했다.(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 '비밀의 숲' 속에 숨어 있던 범인이 실체를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황시목(조승우)과 한여진(배우나)은 김가영(박유나)이 납치됐던 장소를 발견했고, 서동재(이준혁)는 한조 회장 이운범(이경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창준(유재명)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다. 그러나 음약을 틀어췌던 비라트가 잘 들리지 않았고, 간신히 건져낸 말은 크레인 흉포이라는 단어였다.

동제의 귀환에 시목은 상관없어 보이는 일본군수업체와 국방장관을 모은 윤남을 미심쩍어했다. 그리고 마침내 의도를 파악한 시목, 먼저 살해된 검찰 스폰서 박무성의 정체를 보도했던 신문일보의 사장(태인호)을 찾아갔다. 서부지검 뇌물 의혹을 제보했던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 시목은 "제보자의 타깃이 서부지검

이나 아니면 한조냐는 질문과 "내용 없이 의혹만 담긴 제보를 왜 바로 터뜨렸냐"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사장은 사적 감정이 있었다고 인정, 장준의 아내 이연재(윤세아) 집안과 혼담이 오간 사이였음을 털어냈다. 그리고 제보 편지를 보냈던 이는

어떤 남자의 부탁을 받은 여고생이었던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시목은 여고생의 신원을 요구, 국방부의 무기 수입 건에 대해 조사해보라 제안했다. 이로써 시목은 제보자의 실체를 좁혀갔다. "이창준과 박무성의 관계, 개제버린 성문과 한조의 혼담, 성문 사장의 해묵은 앙심까지 아는 사람"인 것. 이날 시목의 폭로로 '원산지 숨겨 판 무기, 알고 보니 일본산'이라는 기사가 뿌러졌고, 윤남과 장준의 불법무기 수입은 저지됐다.

이를 제보한 인물이 시목임을 안 윤남, 아니 다름가 시목은 갑자기 특임팀 해체 지시를 받았고 곧장 검찰총장(신우재덕)을 찾아가 "누구의 명령이냐"며 따졌다. 여기에 서부지검 부장김시목이 나서 "특임팀 해체를 철회해 달라" 힘을 보태자, 상황은 일단락됐다. 위기를 넘긴 시목은 장준을 만나 "무엇이 겁나서 저희를 종결시켰냐"며 그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을 경고했다.

또 영은수(신혜선)는 시목의 집 아파트 현관에서 우산 쓴 이상한 남자를 목격했다. 그에게 곧바로 연락, 전화를 대신 받은 여진의 권유로 특임팀 회식에 초대됐다. 그러다 실수로 윤과장(이규형)에게 불을 앞질러 어깨의 검은 문양을 보게 된 영은수, 이제야 드러난 진실, 기영이 지하실에서 봤던 숫자 0, 7은 윤과장의 어깨에 흠집처럼 새겨진 알파벳 D, T였다.

한편 '비밀의 숲'은 매주 토, 일 밤 9시 방송된다.

황순원 '소나기',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8월 개봉



황순원 작가의 대표작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소설 '소나기'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소나기' (감독 안재훈 배급 리틀빅픽처스)가 오는 8월말 개봉을 확정하며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풋풋한 모습 담은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기 (감독 안재훈 배급 리틀빅픽처스)가 오는 8월말 개봉을 확정하며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풋풋한 모습 담은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첫사랑을 그린 '소나기'가 오는 8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소나기'는 황순원 작가의 대표작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 '소나기'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소나기'로 한 시골소년과 도시소녀의 짧지만 순수한 첫사랑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로 한 시골소년과 도시소녀의 짧지만 순수한 첫사랑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소나기'는 '소중한 날의 꿈 2011',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2014' 등 특유의 감성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고유의 빛깔을 지켜주고 있는 제작사 '연필로 명상하기'의 안재훈 감독이 선보이는 작품이다.

섬세하고 사려 깊은 작화로 누구나 한방쯤 쭈어 보았을 첫사랑의 원형을 그려낸 관객들에게 옛 추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여 이러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소나기'는 한국적 색채와 토속적인 서정성을 보여준 작가 황순원의 원작을 기억하는 관객들에게는 그 시절 국어시간의 추억과 잊혀졌던 설렘의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어린 세대에게는 풋풋한 첫사랑의 감성을 전하며, 전 세대가 '첫사랑'이라는 공감대로 함께 하게 되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예정이다.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 2종은 들뜬 발을 헤치며 내달리고 있는 달뜩 소녀의 모습과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뒤를 돌아보는 수줍은 소녀의 얼굴을 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애니메이션 '소나기'는 오는 8월 개봉 예정이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음력 5월 25일)



▶**복록** 36년생 미련을 버려라.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우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사계**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나아진다.49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5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영역의**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4년생 기다림을 알라.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계**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복록** 40년생 외출을 삼가라.52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중년** 41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3년생 부모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5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77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9년생 꿈을 접지마라.



▶**복록** 42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중년**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55년생 뜻밖의 재물은 있다.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9년생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영역의** 32년생 출입을 삼가라.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복록**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복록**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복록** 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